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성과공유회 성료

전북경진원, 스타트업 성장 전략 모색... 2026년 사업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전북지역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전북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20개 기업을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의 눈부신 성과와 함께 2026년 사업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5년 사업 결과보고와 성과 공유에 이어, 2026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의 미래 비전이 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전북지역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됐다. 참석자들은 전북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기업과 경진원 및 병원 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기

업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분야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는 넥스트이 트파트너스 변정훈 대표가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정부 지원사업 동향과 기술특례성장(IPO) 전략,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 방안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 노하우를 전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윤여봉 원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북 K-바이오헬스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2026년에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전북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전북경진원과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참여기업 모집은 내년 1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창업 10년 이하의 바이오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1-2142)으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TP 부설기관)는 2일 '2025년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공한 지역 기업들 눈부신 성과 공개

디지털센터,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 성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TP 부설기관)는 2일 '2025년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한 지역 기업들의 눈부신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총 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중 데이터 가공 분야에는 에버젠, (주)베이지인웍스, (주)퍼치가 데이터 구매 분야에는 (주)리썬치광, (주)성립지이스, (주)에이앤지컴퍼니, (주)연을담다, (주)올리고컴퍼니, (주)정원컴퍼니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 가공과 구매를 활용해 서비스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성과 보고회에서 (주)퍼치는 Custom 가상 인플루언서 데이터 가공 및 AI 인플루언서 포함 영상

생성 모델 개발 사례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올리고컴퍼니는 '정통시장 온라인' 실시간 가격 업데이트를 위한 상인 손글씨 데이터 수집 및 구매 사례로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제품 성능 개선, 매출 신장, 시제품 개발 운영 비용 절감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대규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적극 권장... 소득공제 혜택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말을 맞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2025년 마지막 소득공제 혜택과 퇴직금 미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맞춤형 공제제도로, '자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담당한다. 가입자는 매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사업 여건에 따라 부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특히, 노란우산의 핵심 매력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중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후에는 내년 1월부터 사업 상황에 맞게 월 납입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7월부터 '노란우산' 행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12월 31일까지 노란우산에 신규 온라인 가입하는 고객 전원에게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소비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선물로 증정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획득

2년 연속 S등급 재인증으로 지역사회 기여 입증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인증 제도다. 이번 심사에는 전북자치도 내 36개 기

관이 참여했으며, 그중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6곳에 불과해 전북신보의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

전북신보는 지난해 첫 인증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경영과 투명 경영,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전 직원 참여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 △14개 시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 추진

등을 높은 평가요소로 꼽았다.

한종관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이번 최고등급 재인증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지역 기업들, 주 4.5일제 도입에 "아직은 시기상조"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인식 및 영향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9%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20.0%에 그쳐, 전반적으로 지역 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응답 기업의 66.8%가 주 4.5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58.8%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제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 일정 지연과 작업 효율성 저

하가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비제조업계는 서비스 공백 확대와 운영 부담 가중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5.8%, 중소기업의 61.0%가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비용 부담과 인력 운용의 어려움에 대한 공통된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34.8%)',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20.2%)', '기업 이미지 개선(15.6%)',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용이(14.8%)' 등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비스 차질(28.0%)', '생산 남기 지연(27.7%)', '업종별 적용 한계(23.1%)'와 같은 현실적인 부담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도 도입 의향에 대해선 58.0%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해 단기 도입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적정 도입 시기로는 '제도적·경제적 기반 마련 이후'가 4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준비와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오상근 기자

고령자·소상공인 맞춤형 현장 상담 강화

전개공, '찾아가는 보상지원 서비스'로 주민 보상을 크게 향상

전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과 지방도·국지도 보상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보상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특히 고령자와 소상공인 등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과 자료 안내, 협의 지원을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밀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의가 지연되던 주민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보상률도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고령자의 이동 불편 해소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제약 완

화 △주민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설명 제공 등으로 협의의 지연 요소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전북개발공사는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 방문 일정 운영 △주민센터 연계 현장 창구 강화 등 주민 밀착형 지원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보상을 안정화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상지원 서비스는 실제 보상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